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큰 못을 광광 소리나게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욕을 할 때에도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이에요."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 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 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소,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 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서  
고마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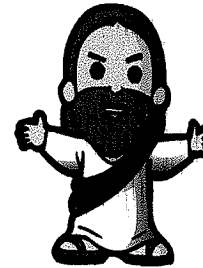


◀그뻘 그랬지▶ 방학책

방학식 날이면 손에 한권씩 들고 오던 방학책, 문제푸는거야 문제가 될게 없었지만 방학책 맨 앞에 있던 일기쓰기가 늘 문제였습니다. 개학 전날에야 한달치 일기를 쓰자니 날씨가 생각나지 않아 기억을 더듬어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동네 친구들이 같은 날자인데도 날씨가 서로 달랐습니다. 여름방학에는 방학책 외에도 곤충채집이 빠지지 않는 숙제여서 긴 장대에 철사 태를 동글게 두르고 거미줄을 묻혀 잠자리며 곤충을 잡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그 때의 즐겁던 방학은 멀어져 있고 방학이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들녀석에 신경이 써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비보 같은 교회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15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4월 11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a href="http://calvary.ca.to">calvary.ca.to</a>		

어떤 깨달음 -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 임규일



우리가 시방 이대로  
부활을 꿈꾸어도 좋을까?

물론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나를 생각하소서"라며 예수를 부르고 간청하여  
낙원을 허락받으며 죽어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우리 모두도  
그런 간절함 하나로 남아야 하련만  
너무 염치가 없다

부활해봤자  
세로가 부대끼고 거북한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문득 깨달게 된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 예수께서만 부활하심을....!

우리는 애오라지  
첫열매되신 주님께 붙어서  
비로소 다시 살게 되는 것임을

아닌가? 그런가? 그럴까?  
... 그래야겠지?

몸쓸, 못쓸 나를  
털어버리자

◀남편 기 살리는 말▶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입맛까지 까다롭기는 "

◀아내 기 살리는 말▶

"당신 못을 때 보면 여고생 같아 "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하루 종일 뭐 했어?"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2 (부활절)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159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16: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 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갈리리에서 만나자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155장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기쁨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4월의 예배위원 ◆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설 것이
4	박일영	김경일	8구역
11	이광희	박하림	청년부
18	이규임	박혜련	9구역
25	이재영	백제성	10구역

'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 교우소식  
<한국방문> \*김경숙 집사. 효은. 송은. 해석.  
\*김인희 집사. 예원  
\*정성호 집사. 부친 위독
- 오늘은 “부활절”: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굳이 주일에 교회에 시간을 뺏길 이 유도,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며 살 이유도 없었을 테지요.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 “부활절 봉헌 손으로 쓴 영어성경”  
\*어릴 때, 추수감사절 봉헌으로 배추나 무우를 가져가 강대상 옆에 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맘출려 거둔 것으로 드리던 봉헌.... 정성을 담아 쓴 성경을 드리는 부활절 봉헌에 감격스러움이 일어납니다.
- 부활절 축하 BBQ Party (선교회별)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잔치는 우리가 즐깁니다. 이렇게 즐거운 기쁨을 누리라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라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치유를 위한 “특별 중보새벽기도회” <일시> 12일(월)-16일(금), 6시  
\*지금 치유를 갈급해 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계십니다.  
<참여> 일주일 중 편리한 요일 “하루” 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교우께서는 구역장께 알려 주십시오
- “금요정기구역예배”: 금주는 구역예배주간입니다.
- ‘믿음의 어머니기도회’ 는 19일에 갖겠습니다
- 청년부 수련회 \*13일(화)-15일(목) Tauranga
- 학생부 Camp \*17일(토)-18일(주일). 교회 Hall  
\*Hall에서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텐트를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김미애 집사)
- ‘은 십자가 성가대’ (예고): 다음주일은 제2여선교회에서 은 십자가성가대로 찬양.
- Tax Refund를 위한 “헌금증명서”: 완성되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한 시인들▶ 기쁜 마음으로  
박해석

너희 살을 떡처럼  
떼어 달라고 하지 않으나  
너희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르어 달라 하지 않으나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만 틈을 빌려 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작은 걸을 내어 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맞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당으로 들어 서던 어릴 적 부활절. 그 날은 무언가 거룩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한껏 들떠 있던 날이었습니다.

떠나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고 의심하던 제자에게 확인까지 시키시던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부활의 소망에 편승시켜 주셨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야 부활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직접 겪어야 아는 도마 같은 나의 모습....